

The Place Identity of Uiam Rock at Jinjuseong Fortress and the Performance Contentization of Historical Narrative : Focusing on the Site-Specific Historical Musical Uigi Nongae

Moon, Soon-h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munmun103@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site-specific historical musical Uigi Nongae, performed on the floating stage of the Namgang River near Uiam Rock at Jinjuseong Fortress in 2026. It analyzes how a historical place is transformed into performance content and what cultural significance this transformation produces.

Methods This study analyzes Uigi Nongae from three perspectives: the formation of place-based memory through Jinjuseong Fortress, Uiam Rock, and the Namgang River; the transformation of Nongae's historical narrative into a visual and sensory performance; and the expansion of local historical resources into tourism conten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nd night tourism.

Conclusions Uigi Nongae is not merely a local performance, but a case of regional K-historical content that combines historical memory, place identity, citizen participation, and cultural tourism strategy. The performance demonstrates how local historical narratives can be reconfigured as site-specific cultural content and used to strengthen historical tourism.

Keywords Uigi Nongae; Jinjuseong Fortress; Uiam Rock; site-specific historical musical; place identity; local cultural content; historical tourism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6.6.312.004

Received: May 20, 2026 ; Reviewed: June 10, 2026 ; Accepted: June 30, 2026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진주성 의암(義巖)의 장소성과 역사 서사의 공연콘텐츠화

– 실경역사뮤지컬 〈의기(義妓) 논개(論介)〉를 중심으로 –

문순희

차례

1. 서론
2. 논개 서사의 역사적 기반과 의암의 장소성
3. 실경 역사 뮤지컬의 양식과 논개 서사의 재해석
4. 시민 참여와 지역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의미
5. 마무리와 과제

1. 서론

진주성은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서 진주대첩과 제2차 진주성 전투의 기억을 함께 간직한 역사적 공간이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전투가 벌어졌던 유적지가 아니라, 항전과 패전, 죽음과 기념, 충절과 애도의 감정이 중층적으로 축적된 장소이다.¹

특히 의암(義岩)은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공간으로, 진주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의암이라는 바위는 자연 지형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논개 서사를 매개로 하여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후대의 기념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적 표지로 기능해 왔다.²

논개 서사는 추상적인 충절담으로만 전승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진주성, 남강, 의암이라는 구체적 지리와 결합하면서 강한 장소성을 획득하였다. 논개의 죽음은 한 인물의 비극

¹ 서윤희. (2019). 임진왜란의 기억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구현. 태동고전연구, 43, 9-42.

² 양지선, 김미숙. (2010). 의암별제의 특성 연구. 한국무용연구, 28(2), 169-192.

적 결단으로 기억되는 동시에, 진주성 함락의 역사와 남강의 공간적 이미지, 의암의 상징성이 겹쳐지면서 지역의 대표 서사로 자리 잡았다.³ 곧 논개의 이야기는 장소를 통해 지속되고, 장소는 논개 서사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진주성 의암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지역민의 기억과 역사적 감정이 응축된 문화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주목된다. 이 공연은 논개의 순국 장소로 전승되어 온 진주성 의암 일원과 남강 수상(水上) 무대를 실제 무대로 삼는다. 따라서 〈의기 논개〉는 역사적 사건을 극장 내부에서 재현하는 일반적인 역사극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무대 장치가 과거의 장소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기억을 품은 현장이 곧 공연 공간으로 전환된다. 관객 역시 무대 위의 장면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강의 물길, 의암의 지형, 진주성의 야경, 야외 공간의 분위기 속에서 논개 서사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때 공연은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장소와 몸, 시각과 청각, 기억과 감정을 결합하는 복합적 문화 실천으로 확장된다.⁴

실경역사뮤지컬이라는 형식은 이러한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의기 논개〉에서 진주성은 배경이 아니라 서사의 구조를 지탱하는 축이며, 남강은 논개의 죽음을 환기하는 상징적 장치로 작용한다. 의암은 역사적 사실과 전승, 지역민의 기억과 관광객의 시선이 만나는 접점이 된다. 그러므로 이 공연은 논개 서사의 현대적 재현인 동시에, 진주라는 도시가 자신의 역사 자원을 현재의 공연콘텐츠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전문 배우와 시민 배우의 참여, 야간 수상무대의 활용, 지역 관광과의 연계는 이 작품이 단순한 기념 공연을 넘어 지역문화 콘텐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글은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를 대상으로, 역사 현장이 공연 공간으로 전환되는 방식과 그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논개 서사가 진주성 의암이라는 장소와 결합하면서 어떠한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형성하는지 검토한다. 이어 실경뮤지컬의 형식이 논개 서사를 시각적·청각적·공간적 체험으로 바꾸는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이 공연이 진주의 지역 정체성, 시민 참여, 문화관광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찰한다. 끝으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공연콘텐츠로 재현할 때 발생하는 의미와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3 박기용. (2004).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32, 169-214.

4 연합뉴스. (2026, 5월 18일). 진주 뮤지컬 ‘의기논개’ 9회 연속 매진...관람객 99% ‘만족했다’. 연합뉴스.

2. 논개 서사의 역사적 기반과 의암의 장소성

논개 서사는 임진왜란, 진주성, 남강, 의암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논개 이야기가 지닌 역사적 긴장과 장소적 의미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렵다. 임진왜란은 논개 서사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이고, 진주성은 전쟁과 항전의 현장이며, 남강은 순국의 장면을 감각적으로 환기하는 자연 공간이다. 여기에 의암은 논개의 행위가 응축되어 기억되는 상징적 지점으로 자리한다. 따라서 논개 서사는 한 인물의 의로운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역사 공간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장소 기억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논개는 일반적으로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 이후 진주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된 상황에서 왜장을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한 인물로 기억된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충절과 순국의 표상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진주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서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논개 서사의 의미를 단순히 ‘충절’이라는 윤리적 가치로만 환원해서는 안 된다. 이 서사는 전쟁의 참혹함, 성의 함락, 지역 공동체의 상실, 여성 인물의 결단, 후대의 기념 문화가 함께 얹혀 형성된 복합적 기억의 산물이다. 논개의 행위는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진주성이라는 역사 공간 안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며 지역의 상징으로 재구성되어 왔다.⁵

진주성은 논개 서사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지만, 단순한 무대나 지리적 위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진주성은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항전의 기억을 품고 있는 장소이며, 진주대첩의 승리와 제2차 진주성 전투의 비극이 함께 새겨진 공간이다. 이중적인 기억은 진주성의 장소성을 더욱 두껍게 만든다. 승리의 기억만 남아 있는 장소가 아니라, 패전과 죽음, 애도와 추모의 감정이 함께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개 서사는 바로 이 복합적 역사 기억 위에서 형성되었다. 진주성이라는 공간이 없었다면 논개의 행위는 지역적 상징성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며, 반대로 논개 서사가 없었다면 진주성의 기억 또한 오늘날과 같은 강렬한 감정적 표상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남강 역시 논개 서사의 의미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강은 진주성을 둘러싼 자연 경관의 일부이면서, 논개의 순국 장면을 시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물은 이 서사

5 정지영. (2007). 논개와 계월향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기: 조선시대 ‘의기(義妓)’의 탄생과 배제된 기억들. 한국여성학, 23(3), 155-187.

에서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의 장소이자, 적을 끌어안고 사라지는 장면을 완성하는 극적 장치이며, 순국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매개이다. 강물은 흐르지 만, 그 위에 덧입혀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남강은 논개 서사의 감정적 깊이를 만들어 내는 공간이다. 진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역사적 기억을 불러온다면, 남강을 바라 보는 시선은 논개의 마지막 장면을 현재의 감각 속으로 끌어온다.

의암은 이러한 장소성의 핵심 지점이다. 의암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바위였지만, 논개 서사와 결합하면서 역사적 상징물로 전환되었다. 본래 위험한 물길과 관련된 장소였던 바위가 논개의 순국 이후 ‘의로운 바위’라는 의미를 얻게 되었다는 점은 장소의 의미가 어떻게 역사적 사건과 전승을 통해 바뀌는지를 잘 보여준다. 바위 자체가 처음부터 역사적 의미를 지녔던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기억하고 기념해 온 후대의 시선이 의암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 의암의 장소성은 자연 지형과 역사 서사, 기념 의식이 결합한 결과이다.

이 점에서 의암은 논개 서사의 물리적 표지이자 기억의 매개체이다. 사람들은 의암을 통해 논개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논개 서사를 통해 의암의 의미를 다시 확인한다. 장소와 서사가 서로를 설명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의암은 단순히 ‘논개가 죽은 곳’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은 진주성 함락의 비극, 왜장과 함께 강물에 뛰어든 결단, 지역 공동체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충절의 감정을 함께 담아내는 상징적 장소이다. 따라서 의암을 바라보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행위가 아니라, 역사적 기억을 다시 읽는 행위에 가깝다.

논개 서사가 특정 장소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은 다른 역사 인물 서사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많은 역사적 인물은 문헌 기록이나 후대의 평가를 통해 기억된다. 그러나 논개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특정 지형과 밀착되어 전승된다. 진주성 축석루 아래, 남강의 물길, 의암의 바위라는 구체적인 공간이 논개의 행위를 현재적으로 증언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물론 이러한 장소가 실제 사건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후대의 기억 속에서 사건의 현장으로 받아들여지고, 반복적인 방문과 기념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계속 생산한다는 점이다. 장소는 과거를 저장하는 고정된 그릇이 아니라, 현재의 시선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기억의 장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가 진주성 의암 일원과 남강 수상무대에서 공연된다는 사실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인 역사뮤지컬은 극장 내부에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음향·무대 장치·영상 등을 통해 과거의 장면을 재현한다. 관객은 극장이라는

분리된 공간 안에서 역사적 사건을 관람한다. 그러나 〈의기 논개〉는 논개 서사가 전승되어 온 실제 장소를 공연의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여기서 의암과 남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공연의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무대가 장소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장소 자체가 무대가 되는 것이다.⁶

이때 공연의 성격도 달라진다. 〈의기 논개〉의 관객은 객석에 앉아 논개의 이야기를 보는데 그치지 않는다. 관객은 논개 서사가 발생했다고 기억되어 온 공간 안에 자신의 몸을 위치시킨다. 남강의 물결, 밤의 공기, 진주성의 윤곽, 의암이 지닌 상징성이 공연의 장면과 함께 작동한다. 이로써 관객의 경험은 시각적 관람을 넘어 공간적 체험으로 확장된다. 무대 위 인물의 대사와 노래, 조명과 영상 효과는 실제 장소의 분위기와 결합하면서 논개 서사의 감정적 설득력을 높인다. 실경공연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허구적 무대 장치를 통해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깃든 장소를 현재의 공연적 시간 안으로 불러들인다.

의암과 남강의 장소성은 특히 논개의 순국 장면에서 강하게 작동한다. 극장 무대에서 투신 장면이 재현될 경우, 관객은 그것을 하나의 극적 장면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남강 수상무대에서 같은 장면이 펼쳐질 때, 관객은 눈앞의 실제 물과 역사적 전승을 동시에 의식하게 된다. 강물은 장면의 사실감을 높이는 물리적 조건이자, 논개의 죽음을 상징하는 감정적 장치가 된다. 의암 역시 단순한 배경물이 아니라, 논개 서사의 결말을 예고하고 보증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이처럼 실경역사뮤지컬에서 장소는 무대미술을 보완하는 요소가 아니라, 공연 해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호가 된다.

또한 의암의 장소성은 공연의 시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객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공연을 보지만, 그 장소는 과거의 사건을 끊임없이 환기한다. 현재의 몸은 남강 앞에 앉아 있고, 시선은 무대 위 배우를 향하지만, 인식은 임진왜란기의 진주성으로 이동한다. 이때 과거와 현재는 분리되지 않는다. 공연은 과거를 현재에 재현하고, 현재의 관객은 과거의 사건을 자신의 감각 안에서 다시 구성한다. 따라서 〈의기 논개〉는 역사 지식을 설명하는 방식보다 더 강한 체험적 효과를 갖는다. 관객은 논개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놓인 장소를 ‘겪게’ 된다.

이러한 장소 기반 공연은 지역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의 역사 자원이 공연으로 전환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만이 지닌 고유성이다. 논개

6 류광현. (2025, 5월 7일). 진주논개제,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름 인파’. 경남일보.

서사는 다른 도시에서 재현될 수도 있지만, 의암과 남강을 실제 무대로 삼는 공연은 진주에서만 가능한 콘텐츠성을 갖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기 논개〉는 지역의 장소 자산을 공연 예술로 전환한 사례가 된다. 진주성의 역사성, 남강의 경관, 의암의 상징성은 공연의 미학적 자원이자 관광적 매력으로 작용한다. 공연은 지역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현재의 관객이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사건으로 재구성한다.⁷

다만 논개 서사의 장소성을 강조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논개를 충절의 상징으로만 고정하면, 인물의 복잡성과 역사적 상황의 비극성이 단순화될 수 있다. 논개의 행위는 의로운 죽음으로 기념되어 왔지만, 그 배경에는 전쟁, 성의 함락, 폭력, 여성의 위치, 후대의 영웅화 과정이 복잡하게 놓여 있다. 따라서 의암을 논개의 순국 장소로 기념하는 일은 단순한 영웅 서사의 반복을 넘어, 그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는지를 함께 성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장소는 기억을 보존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을 선택하고 배열한다. 공연은 바로 그 선택과 배열의 방식을 드러내는 문화적 장치이기도 하다.

결국 논개 서사의 역사적 기반과 의암의 장소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논개의 이야기는 진주성, 남강, 의암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통해 생생한 형상을 얻었고, 이 장소들은 논개 서사를 통해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는 이러한 관계를 공연적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의암과 남강은 이 작품에서 배경이 아니라 기억의 무대이며, 관객은 그 장소에 몸을 두는 순간 논개 서사의 현재적 수용자가 된다. 이 점에서 〈의기 논개〉는 역사적 장소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장소를 매개로 역사 감각을 재구성하고 지역의 기억을 현재의 문화 경험으로 전환하는 공연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3. 실경역사뮤지컬의 양식과 논개 서사의 재해석

〈의기 논개〉는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실경역사뮤지컬의 형식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이 공연의 시작은 2006년 진주 논개제에서 초연된 ‘논개순국재현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공연은 논개의 순국 장면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었다. 다시 말해 논개 서사의 핵심 장면을 축제 현장에서 재현함으로써,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7 하혜경. (2020). 조선시대 진주의 대표경관 분포 특성. 한국경관학회지, 12(2), 246-262.

진주성의 역사와 논개의 충절을 환기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후 이 공연은 16년 동안 진주성이라는 역사 현장에서 야외극 형태로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면 구성, 연출 방식, 무대 활용, 관객 수용 방식이 조금씩 보완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 이르러 기존의 역사야외극은 현재와 같은 ‘실경역사뮤지컬’ 형식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공연 명칭의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순국재현극’이 역사적 사건의 재현에 방점을 두었다면, ‘실경역사뮤지컬’은 장소, 음악, 영상, 조명, 배우의 신체, 관객의 체험을 종합적으로 결합하는 공연 양식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

실경역사뮤지컬은 실제 경관을 무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공연 형식이다. 일반적인 극장 공연이 무대 장치와 조명, 배경막,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공간을 인공적으로 구성한다면, 실경공연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과 역사 공간을 공연의 미학적 자원으로 전환한다. 산, 강, 성곽, 누각, 바위, 유적, 야경과 같은 요소들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서사를 발생시키고 감정을 조율하는 장치가 된다. 이런 점에서 실경역사뮤지컬은 무대 안에 장소를 들여오는 방식이 아니라, 장소 자체를 무대로 삼는 방식에 가깝다. <의기 논개>의 경우 진주성, 의암, 남강, 수상무대가 각각 독립된 배경으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공연 공간을 형성한다. 성곽은 전쟁과 항전의 기억을 불러오고, 의암은 논개 순국의 상징성을 압축하며, 남강은 죽음과 비극, 정화와 기념의 이미지를 동시에 품는다. 여기에 수상무대가 설치됨으로써 논개 서사의 결말은 단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시야 앞에서 공간적으로 형상화된다.

2026년 <의기 논개>는 이러한 실경공연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공연은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주성 의암 일원 남강 수상무대에서 진행되었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관객을 만났다. 전체 공연 시간은 약 55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석 1만 원의 관람료와 네이버 사전예약 방식이 결합되었다. 이 운영 방식은 <의기 논개>가 순수한 예술 공연으로만 기획된 것이 아니라, 지역 축제, 야간관광, 시민 참여,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 문화콘텐츠임을 보여준다. 공연의 장소가 진주성이고, 시간이 야간이며, 관람 방식이 사전 예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역사적 장소의 체험을 현대적 관광 소비의 방식과 접속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공연의 핵심은 논개 서사의 ‘재현’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논개 이야기가 여러 매체와 감각을 거치며 새롭게 구성되는 ‘재해석’의 과정이다. 논개 서사는 오래전부

8 류광현. (2025, 5월 7일). 진주논개제,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름 인파’. 경남일보.

터 문헌 기록, 지역 설화, 기념비, 제향 의례, 축제, 관광 안내, 교육 자료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러한 전승 방식은 각기 다른 매체적 성격을 지닌다. 문헌은 논개를 기록 속 인물로 고정하고, 설화는 지역민의 구술 기억 속에서 이야기를 변형하며, 기념비는 논개의 행위를 돌에 새겨 물질적 표지로 남긴다. 제향과 축제는 논개를 공동체적 의례의 대상으로 만들고, 관광 안내는 그 서사를 방문객에게 설명 가능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정리한다. 이처럼 논개 서사는 하나의 고정된 원형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시대와 매체에 따라 계속 다른 방식으로 호출되어 왔다.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는 이 누적된 전승을 무대 위에서 다시 엮어낸다. 여기서 논개 서사는 문장으로 읽히거나 해설로 전달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배우의 노래와 대사, 군무의 동선, 조명의 명암, 영상의 이미지, 음향의 울림, 남강의 실제 수면, 진주성의 야경이 함께 작동하면서 하나의 감각적 사건으로 바뀐다. 따라서 이 공연에서 논개 이야기는 ‘알려진 역사’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눈과 귀와 몸으로 받아들이는 현재적 경험으로 재구성된다. 재해석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가리킨다. 과거의 서사가 새로운 매체와 형식을 통과하면서 다른 감각 체계 안에 놓이고, 그 결과 기존의 기억이 현재적 문화 경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특히 뮤지컬이라는 형식은 논개 서사의 감정 구조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역사적 사건은 설명만으로는 관객의 정서적 몰입을 충분히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노래는 인물의 내면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음악은 장면의 정조를 조율하며, 군무는 공동체적 긴장과 집단적 비극을 시각화한다. 논개의 결단은 대사로 설명될 때보다 노래로 발화될 때 더 강한 감정적 밀도를 얻는다. 또한 전쟁과 함락의 상황은 배우들의 집단적 움직임, 무대의 공간 분할, 음향의 고조, 조명의 변화 속에서 더욱 극적으로 체감된다. 이처럼 뮤지컬 양식은 논개 서사를 단순한 역사 설명에서 벗어나, 감정의 흐름과 장면의 리듬을 지닌 공연 서사로 바꾸어 놓는다.

남강 수상무대는 〈의기 논개〉의 미학적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물은 단순한景觀 요소가 아니다. 남강은 논개의 죽음을 예고하고, 순국의 장면을 감각적으로 보증하며, 관객에게 사건의 장소성을 직접 환기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극장 안에서 물은 흔히 조명이나 영상, 무대 장치로 대체된다. 그러나 〈의기 논개〉의 수상무대에서는 실제 강물이 공연 공간의 일부가 된다. 관객은 무대 위 인물의 움직임을 보면서 동시에 남강의 수면을 바라본다. 이때 물은 죽음의 장소이자, 비극의 표면이며, 기억을 품은 자연물로 기능한다. 논개의 투신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으로 설명되지 않고, 눈앞의 강을 통해 현재의 감각 속으로

되 돌아온다.

수상무대의 효과는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서도 두드러진다. 관객은 공연 초반부터 남강이라는 공간이 논개 서사의 결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강물은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결말을 암시하는 존재로 작용한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조명이 수면을 비추며, 음악이 고조될수록 관객은 논개의 마지막 행위를 예감하게 된다. 이 예감은 공연의 비극성을 강화한다. 관객은 사건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결말이 실제 장소에서 다시 펼쳐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새로운 감정적 긴장을 경험한다. 이러한 구조는 역사극 특유의 효과와도 연결된다. 역사적 결말은 바뀌지 않지만, 공연은 그 결말에 이르는 감정의 길을 매번 새롭게 구성한다.

야간 공연이라는 조건 역시 <의기 논개>의 양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오후 8시의 공연 시간은 진주성의 낮 풍경을 밤의 감각으로 전환한다. 낮의 진주성이 관람, 해설, 산책, 유적 답사의 공간이라면, 밤의 진주성은 조명과 음향, 어둠과 수면의 반사, 성곽의 윤곽이 결합된 몰입의 공간이 된다. 어둠은 시야를 제한하는 동시에, 무대 위 장면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한다. 조명은 의암과 수상무대, 배우의 신체를 선택적으로 비추며 관객의 시선을 조직한다. 남강의 수면은 빛을 받아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논개 서사가 지닌 비극적 정조를 시각적으로 확장한다. 이처럼 야간성은 단순한 공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의 미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영상과 특수효과의 활용 또한 실경역사뮤지컬의 재해석의 방식을 잘 보여준다. 역사적 사건은 그 자체로 이미 지나간 시간에 속한다. 공연은 이 부재한 과거를 현재의 장면으로 되살려야 한다. 이때 영상은 전투, 화염, 군중, 기억, 상징 이미지를 빠르게 제시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특수효과는 현실의 장소 위에 극적 분위기를 덧입히며, 조명은 역사 현장을 공연적 공간으로 변형한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 장치가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역사적 장소의 무게를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하게 활용될 때 영상과 특수효과는 장소가 이미 품고 있는 기억을 시각적으로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의기 논개>에서 기술은 장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역사성을 현재의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개로 기능한다.

<의기 논개>의 재해석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역사적 인물의 서사화 방식이다. 논개는 오랫동안 ‘의기’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어 왔다. 이 명명은 논개의 행위를 충절과 순국의 표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공연은 단순히 논개를 기념비적 인물로 세우는 데 머물 수 없다. 무대 위 인물은 관객 앞에서 말하고 노래하고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공연은 논개에게 감정과 선택, 망설임과 결단의 과정을 부여한다. 이때 논개는 추상적 상징

에서 공연적 인물로 전환된다. 관객은 논개를 역사 속 이름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극적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인물로 마주한다. 이것이 뮤지컬이 역사서사를 재해석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인물화 과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논개를 오직 희생과 충절의 표상으로만 재현하면, 역사 속 여성 인물의 삶은 죽음의 장면으로 수렴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지나친 극적 상상력은 역사적 장소가 지닌 기념성과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기 논개〉의 공연적 성취는 역사적 기억과 예술적 상상력 사이의 균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어우야담』에 전하는 논개 관련 서술, 지역 설화, 후대 기념 문화는 공연 창작의 토대가 되지만, 뮤지컬은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현대 관객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면으로 다시 배열한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충실성과 공연적 설득력은 긴장 관계를 이룬다.

2006년 ‘논개순국재현극’에서 2022년 이후 ‘실경역사뮤지컬’로의 변화는 바로 이 긴장 관계를 조정해 온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재현극이 논개의 마지막 장면을 중심으로 역사적 의미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의 실경뮤지컬은 서사 전체의 흐름, 음악적 구성, 무대 공간, 시청각 효과, 관광콘텐츠적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 변화는 지역 역사콘텐츠가 어떻게 현대 공연 양식 속에서 진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의 행사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객의 감각과 기대, 지역 관광의 환경, 공연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형식을 갱신해 온 것이다.⁹

이와 같은 변화는 지역문화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된다.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지역 공연은 자칫 의례적 반복에 머물기 쉽다. 매년 같은 이야기를 같은 방식으로 재현하면 기념의 의미는 유지될 수 있으나,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이는 힘은 약화된다. 〈의기 논개〉가 실경역사뮤지컬로 전환된 것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논개 서사는 이미 지역민에게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실경뮤지컬은 그 익숙한 이야기를 새로운 감각 형식 속에 배치한다. 이로써 관객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논개 서사를 다시 경험하게 된다. 익숙한 역사와 낯선 공연 감각의 결합이 작품의 현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의기 논개〉의 양식적 특징은 역사 현장, 공연 예술, 관광 체험이 서로 결합하는 데 있다. 진주성은 역사적 권위를 제공하고, 의암은 논개 서사의 상징적 중심을 형성하며, 남강 수상무대는 비극적 장면을 감각적으로 실현한다. 뮤지컬 양식은 여기에 음악과 신체,

9 류광현. (2025, 5월 7일). 진주논개제,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름 인파’. 경남일보.

장면 전환의 리듬을 부여하고, 영상과 조명은 야외 공간을 공연적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관객은 이 모든 요소를 통해 논개 서사를 하나의 총체적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의기 논개〉는 논개 이야기를 단순히 다시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문헌과 설화, 기념과 축제 속에 존재하던 논개 서사를 실경뮤지컬이라는 현대적 양식으로 옮겨 놓은 재해석의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논개 서사는 기록된 과거에서 체험되는 현재로, 지역의 기념담에서 관객 참여형 문화콘텐츠로, 유적의 해설에서 감각적 공연 사건으로 전환된다. 〈의기 논개〉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작품은 진주성이라는 역사 현장을 보존된 유적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현재의 관객이 밤의 남강 앞에서 다시 마주하는 살아 있는 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다. 실경역사뮤지컬이라는 형식은 논개 서사를 새롭게 소비하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 기억을 오늘의 감각 속에서 다시 구성하는 공연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 시민 참여와 지역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의미

〈의기 논개〉는 논개 서사를 무대화한 역사공연인 동시에, 지역민이 스스로 지역의 기억을 재현하고 관광객과 공유하는 참여형 문화콘텐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공연은 전문 배우만으로 구성된 폐쇄적 무대가 아니라, 전문 배우와 시민 배우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출연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 배우의 참여는 지역의 역사 자원이 외부 기획자나 예술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몸과 목소리를 통해 다시 수행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논개 서사는 오랫동안 진주의 대표적인 역사 기억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그 기억은 공연을 통해 현재의 감각 속에서 새롭게 되살아난다. 시민이 무대 위에 서는 순간, 진주의 역사는 관람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되새기는 실천의 장으로 전환된다.

지역 역사콘텐츠에서 시민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은 기념비, 기록, 유적, 축제 등을 통해 보존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적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의기 논개〉에서 시민 배우는 단순한 보조 출연자가 아니다. 그들은 논개 서사를 오늘의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발화하는 매개자이다. 시민이 논개와 진주성의 이야기를 몸으로 수행할 때, 지역사는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공동체적 행위로 되살아난다. 이 과정에서 공연은 역사 교육, 문화 향유, 공동체 참여가 만나는

장이 된다. 관객 역시 지역민이 참여한 무대를 바라보면서 논개 서사를 지역 밖의 오래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주 안에서 기억되고 재현되는 살아 있는 문화로 경험하게 된다.¹⁰

이러한 시민 참여 방식은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도 깊이 관련된다. 지역 정체성은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민이 어떤 기억을 공유하고, 어떤 인물을 기념하며, 어떤 장소를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형성된다. 진주의 경우 논개, 진주성, 남강, 의암은 오랫동안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해 왔다. 〈의기 논개〉는 이 요소들을 하나의 공연 안에 결합함으로써 진주가 지닌 역사적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시민 배우의 참여는 지역민이 자신의 도시를 설명하는 방식이자, 외부 관람객에게 진주의 역사적 자존감을 전달하는 문화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관람료가 전석 1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점도 공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대형 상업 뮤지컬의 관람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기 논개〉의 가격 구조는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을 제공한다. 이는 공연이 특정 소비층만을 겨냥한 문화상품이 아니라,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역사문화 콘텐츠로 기획되었음을 보여준다. 저렴한 관람료는 관객층을 넓히는 효과를 낳는다. 가족 단위 방문객, 지역 주민, 학생, 여행객이 부담 없이 공연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결과 논개 서사는 더 넓은 수용층을 만나게 된다. 이 점에서 〈의기 논개〉는 지역 공연예술의 대중성과 역사문화 교육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네이버 예약과 같은 온라인 예매 방식이 결합되면서 공연의 접근성은 한층 확대된다. 지역 역사콘텐츠가 온라인 플랫폼과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매 절차가 편리해졌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관객은 공연 관람을 진주 여행의 전체 동선 안에 배치할 수 있다. 숙박, 음식, 교통, 주변 관광지 방문, 축제 일정 확인이 온라인 정보망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의기 논개〉는 독립된 공연 상품이 아니라, 진주를 방문하는 경험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문화 일정으로 편입된다. 디지털 예약 시스템은 공연과 관광을 연결하는 실질적 통로가 되며, 지역 역사콘텐츠의 유통 방식을 현대적 플랫폼 환경에 맞게 확장한다.

특히, 2026년 공연에서 5월 1일부터 4일까지 연휴 특별공연이 편성되었다는 점은 이

10 정두호, 유춘동. (2020). 서울시 중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레트로(Retro)의 연계. 철학·사상·문화, (33), 109-119.

작품이 지역관광 전략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휴 기간은 관광객의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특별공연을 배치한 것은 진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야간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광객은 낮에는 진주성, 축석루, 의암, 국립진주박물관 등 역사문화 자원을 둘러보고, 밤에는 남강 수상무대에서 <의기 논개>를 관람할 수 있다. 이처럼 공연은 진주의 낮 관광과 밤 관광을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낮의 유적 답사가 지식과 해설 중심의 관람이라면, 밤의 실경뮤지컬은 감각과 몰입 중심의 체험이다. 두 방식이 결합될 때 진주성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복합 관광 공간으로 확장된다.

야간관광 콘텐츠로서의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지역 관광지는 낮 시간대의 관람에 집중되어 있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야간 공연이 마련되면 관광객은 지역에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숙박, 음식, 교통, 주변 상권과 연계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기 논개>는 진주성의 역사적 장소성을 밤의 공연미학과 결합함으로써, 진주 관광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한다. 낮에는 역사 유적을 보고, 밤에는 그 유적을 배경으로 한 공연을 경험하는 구조는 장소에 대한 이해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든다. 관광객에게 진주는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며 체험하는 도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최근 지역문화콘텐츠 정책에서 강조되는 장소 기반 콘텐츠의 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지역은 더 이상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는 배경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지역의 역사, 인물, 설화, 유적, 자연경관, 생활문화가 서로 결합할 때 비로소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이 형성된다. 진주의 경우 논개라는 인물, 진주성이라는 역사 공간, 남강이라는 자연 경관, 의암이라는 상징 장소, 진주논개제라는 축제 기반, 야간관광이라는 운영 전략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문화적 연결망을 이룬다. <의기 논개>는 이 연결망의 중심에서 진주의 역사적 이미지를 공연예술의 방식으로 구체화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장소의 고유성이다. 논개 서사는 다른 지역의 극장에서도 공연될 수 있다. 그러나 진주성 의암 일원과 남강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의기 논개>는 다른 곳에서 쉽게 대체될 수 없다. 공연의 의미가 실제 장소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암 앞에서 논개 서사를 본다는 경험은 일반 공연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관람하는 것과 다르다. 장소가 서사의 진정성을 보강하고, 서사는 장소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역 기반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지역이 지닌 유일한 장소 자산을 공연 형식과 결합할 때, 콘텐츠는 복제 가능한 상품을 넘어 특정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사건이 된다.

〈의기 논개〉는 또한 지역 브랜드 형성에도 기여한다. 도시의 브랜드는 산업 시설이나 관광 시설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 인물, 이미지, 감정이 축적될 때 브랜드가 형성된다. 진주는 이미 진주성, 남강, 유등, 논개 등의 이미지를 통해 역사문화 도시로 인식되어 왔다. 〈의기 논개〉는 이 가운데 논개 서사를 공연콘텐츠로 전환함으로써 진주의 도시 이미지를 강화한다. 특히 남강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야외 뮤지컬이라는 형식은 진주의 역사성과 수변 경관을 동시에 부각시킨다. 이는 진주를 단순한 유적 관광지가 아니라 역사와 공연, 경관과 체험이 결합된 문화도시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적 효과 역시 중요하다. 논개 서사는 교과서나 역사 해설을 통해 배울 수도 있지만, 공연을 통한 경험은 다른 방식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관객은 전쟁, 성의 함락, 논개의 결단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음악과 장면, 조명과 공간을 통해 감정적으로 체험한다. 특히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이러한 공연은 지역사를 친숙하게 접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시민 배우의 참여는 교육적 효과를 더 강화한다. 지역민이 직접 역사를 재현하는 모습을 통해 관객은 역사 기억이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어 가는 문화적 자산임을 확인하게 된다.¹¹

다만 지역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의기 논개〉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공연이 매년 반복될수록 서사의 신선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논개 서사는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객이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공연은 결말의 충격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인물의 내면, 진주성 전투의 역사적 맥락, 지역민의 상실과 애도, 후대의 기념 과정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때 반복 관람의 의미가 생긴다.

둘째, 외부 관광객과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해설 체계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논개 서사의 역사적 배경과 상징을 모르는 관객에게는 공연의 감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어 안내, 공연 전후 해설 프로그램, 진주성 답사 코스와의 연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시민 참여의 의미가 단순한 동원이나 보조 출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 배우가 지역사 재현의 주체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 연습, 역사 이해, 공연 참여의 자긍심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 참여가 형식적 장치에 그칠 경우 공연의 공동

11 태지호, (2022). 역사문화콘텐츠 연구 방법론으로서 ‘문화 연구’를 전유하기. 인문콘텐츠, 64, 23-46.

체적 의미는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시민 배우가 공연의 해석과 전승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의기 논개〉는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의기 논개〉의 의미는 공연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논개 서사를 매개로 진주의 역사 기억을 현재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주체성을 드러내며, 야간 실경공연을 통해 관광 콘텐츠의 범위를 확장한다. 또한 온라인 예약, 저렴한 관람료, 연휴 특별공연, 역사 유적 동선과의 결합은 이 공연이 현대 지역문화관광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기 논개〉는 진주성이라는 장소를 낮의 관람지에서 밤의 체험지로 바꾸고, 논개라는 인물을 기념의 대상에서 공연적 경험의 중심으로 이동시킨다. 이 점에서 〈의기 논개〉는 지역 역사자원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진주의 장소성과 공동체 기억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재구성한 의미 있는 공연이라 할 수 있다.

5. 마무리와 과제

이 글에서 다룬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는 논개 서사가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다시 호출되고, 지역의 역사적 장소가 어떻게 공연적 사건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공연은 논개의 순국이라는 익숙한 역사 기억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는다. 진주성, 의암, 남강이라는 실제 장소를 무대의 핵심 요소로 삼고, 음악·조명·영상·배우의 신체를 결합함으로써 논개 서사를 현재의 관객이 체험할 수 있는 감각적 장면으로 재구성한다. 이 점에서 〈의기 논개〉는 역사극, 야외공연, 지역축제, 관광콘텐츠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복합적인 문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논개 서사는 임진왜란과 진주성 함락이라는 역사적 배경 위에서 형성되었고, 의암과 남강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통해 강한 상징성을 획득하였다. 논개의 죽음은 추상적인 충절담으로만 기억되지 않았다. 그것은 진주성의 전쟁 기억, 남강의 수면, 의암의 바위, 후대의 기념 문화와 결합하면서 지역의 대표 서사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의기 논개〉가 의암 일원에서 공연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장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공연은 논개 서사가 갖는 장소를 다시 무대화함으로써, 역사적 기억이 현재의 공간 안에서 어떻게 되살아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의기 논개>는 ‘재현’보다 ‘재해석’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6년 ‘논개순국재현극’으로 출발한 이 공연은 오랜 기간 야외 역사극의 형식을 거쳐, 2022년 이후 실경역사뮤지컬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논개 서사는 단순한 순국 장면의 재연을 넘어, 음악적 구성과 시각적 연출, 수상무대의 공간성, 야간 공연의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배열되었다. 문헌과 설화, 기념과 축제 속에 존재하던 논개 이야기가 공연 양식을 통과하면서 오늘의 관객에게 다른 감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역사 자원이 현대 공연예술과 결합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새 생명력을 얻는지를 보여준다.

앞으로의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논개 인물의 재현 방식을 보다 입체화할 필요가 있다. 논개는 오랫동안 ‘의기’의 표상으로 기념되어 왔지만, 그 이름 안에는 전쟁 속 여성, 지역 공동체의 상실, 죽음의 영웅화, 후대의 기념 방식이라는 여러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공연이 논개의 마지막 장면만을 강조할 경우, 인물의 삶과 역사적 조건은 희생의 이미지 속에 갇힐 수 있다. 앞으로의 <의기 논개>는 논개의 결단뿐 아니라 그 결단이 가능했던 시대적 배경, 전쟁의 폭력성, 진주성 함락이 남긴 공동체적 상처까지 함께 드러낼 필요가 있다.

둘째, 실경공연의 미학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실제 장소를 활용한다는 점은 이 공연의 강점이지만, 장소의 힘만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의암과 남강의 상징성이 장면 구성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 음악과 대사가 인물의 감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지, 영상과 특수효과가 역사적 분위기를 보완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실경공연은 경관의 장엄함에 기대기 쉽지만, 결국 관객을 움직이는 것은 장소와 서사, 인물과 감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발생한다.

셋째, <의기 논개>를 동아시아 실경공연의 흐름 속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자연 경관과 지역 서사를 결합한 대형 실경공연이 일찍부터 관광 콘텐츠로 발전해 왔다. 광시 양취의 <인상 유삼저>는 리강과 카르스트 산수를 실제 무대로 삼고, 장이머우가 연출에 참여한 대규모 야외 공연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연은 강과 산, 민족음악, 집단 군무를 결합하여 지역의 자연 경관을 하나의 무대 장치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이다. 시안 화청궁의 <장한가> 역시 여산과 화청지의 역사적 장소성을 배경으로 삼아 당 현종과 양귀비의 서사를 야외 음악·무용극으로 구성한 사례이다. 화청궁 공식 안내는 이 공연이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에 진행되며, 약 70분 동안 10개의 장면으로 구성된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중국 사례는 장소의 스케일, 관광산업과의 결합, 야간 경관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기 논개>와 비교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중국식 대형 산수실경묘지컬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본은 성곽, 정원, 사찰, 무가 유적 등 역사 공간을 활용하되, 대규모 서사극보다는 야간 조명, 전통음악, 무사대 퍼포먼스, 디지털 아트, 역사 투어가 결합된 체험형 콘텐츠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센다이 즈이호텐 야간 투어는 다테 마사무네와 센다이 조카마치의 역사성을 조명, 피리 연주, 무사대의 해설과 결합하여 체험하도록 구성된다. 마쓰에성의 야간 연출 사례 역시 성곽이라는 역사 공간에 빛, 안개, 신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장소의 감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일본 사례는 <의기 논개>가 향후 공연 전후 해설, 야간 관람 동선,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결국 <의기 논개>의 의의는 진주의 대표 역사서사를 공연으로 되살렸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장소가 어떻게 기억을 품고, 기억이 어떻게 예술 형식으로 전환되며, 지역의 역사 인물이 어떻게 현재적 문화콘텐츠로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중국의 대형 실경공연, 일본의 역사공간 기반 야간 체험 콘텐츠와 비교하면서 <의기 논개>의 장점과 한계를 분석한다면, 이 공연은 진주 지역의 문화행사를 넘어 한국형 실경역사뮤지컬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류광현. (2025, 5월 7일). 진주논개제,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름 인파’. 경남일보.
- 박기용. (2004).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32, 169-214.
- 서윤희. (2019). 임진왜란의 기억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구현. *태동고전연구*, 43, 9-42.
- 양지선, 김미숙. (2010). 의암별제의 특성 연구. *한국무용연구*, 28(2), 169-192.
- 연합뉴스. (2026, 5월 18일). 진주 뮤지컬 ‘의기논개’ 9회 연속 매진...관람객 99% ‘만족했다’. 연합뉴스.
- 정두호, 유춘동. (2020). 서울시 중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레트로(Retro)의 연계. *철학·사상·문화*, 33, 109-119.
- 정지영. (2007). 논개와 계월향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기: 조선시대 ‘의기(義妓)’의 탄생과 배제된 기억들. *한국여성학*, 23(3), 155-187.
- 태지호. (2022). 역사문화콘텐츠 연구 방법론으로서 ‘문화 연구’를 전유하기. *인문콘텐츠*, 64, 23-46.
- 하혜경. (2020). 조선시대 진주의 대표경관 분포 특성. *한국경관학회지*, 12(2), 246-262.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Park, Gi-yong. (2004). The narrative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the Nongae legend. *Urimalgeul*, 32, 169-214.
- Ryu, Gwang-hyeon. (2025, May 7). Jinju Nongae Festival draws huge crowds with diverse cultural contents. *Gyeongnam Ilbo*.
- Seo, Yoon-hee. (2019). The memory of the Imjin War and the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exhibitions in museums. *Taedo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43, 9-42.
- Tae, Ji-ho. (2022). Appropriating cultural studies as a methodology for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 research. *Humanities Contents*, 64, 23-46.
- Yang, Ji-seon, & Kim, Mi-sook.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iam Byeolje. *Korean Journal of Dance Research*, 28(2), 169-192.
- Yonhap News Agency. (2026, May 18). Jinju musical Uigi Nongae sold out for nine consecutive performances: 99% of audiences satisfied. Yonhap News Agency.
- Jeong, Ji-young. (2007). Remembering the deaths of Nongae and Gyewolhyang: The birth of the “patriotic gisaeng” and excluded memories in the Joseon Dynasty. *Kor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3(3), 155-187.
- Jeong, Du-ho, & Yoo, Chundong. (2020). The linkage between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urban retro culture in Jung-gu, Seoul. *Philosophy, Thought and Culture*, 33, 109-119.

Ha, Hye-kyung. (2020).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landscapes in Jinju during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Studies, 12(2), 246-262.

진주성 의암(義巖)의 장소성과 역사 서사의 공연콘텐츠화 - 실경역사뮤지컬 <의기(義妓) 논개(論介)>를 중심으로

문순희(Moon, Soon-hee)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연구는 2026년 진주성 의암 일원 남강 수상무대에서 공연된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를 대상으로, 역사적 장소가 공연콘텐츠로 전환되는 방식과 그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진주성, 의암, 남강이 논개 순국 서사와 결합하며 지역형 K-역사콘텐츠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연구 방법 <의기 논개>의 공연 장소, 서사 구성, 공연 방식, 관광 연계 요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논개 서사와 진주성·의암·남강의 장소 기억, 실경뮤지컬이 역사적 사건을 시각적·감각적 체험으로 전환하는 방식, 시민 배우 참여와 야간 관광, 예약 시스템, 저가 관람료 등을 통한 지역 관광콘텐츠화 과정을 검토하였다.

결론 <의기 논개>는 단순한 지역 공연이 아니라 역사 기억, 장소성, 시민 참여, 문화관광 전략이 결합된 지역형 K-역사콘텐츠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실제 역사 장소를 무대화함으로써 논개 서사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야간 관광과 공연콘텐츠로 확장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핵심어 의기 논개, 진주성, 의암, 실경역사뮤지컬, 장소성, 지역문화콘텐츠, 역사관광

이 논문은 2026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5월 25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6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